

Business as Mission is bigger than you think

By Mats Tunehag, Sweden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인 BAM 은 때론 다루기 힘들 용어일런지도 모르지만, BAM 은 중요한 개념이며 본질적 실천이다. BAM 은 묘책, 즉 궁극적인 전략은 아니다. 그러나 BAM 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며, 이 땅의 선한 청지기가 되며, 이익을 창출하느냐?’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일터 크리스천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

..BAM 은 하나님과 열방의 백성들을 섬기는 전통적 수단을 대체하고자 함이 아니다. BAM 은 모금 방법도 아니며, 또 교회가 행하는 활동들에 비즈니스를 부속시키는 것도 아니다.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인 BAM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포용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실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뱀은 ‘CSR+’ 이다

..우리는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와 선교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정의의 선교(a mission of justice)이다. 정의로서의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정의로의 선교 그리고 또 다른 용어들은 Business as Mission 의 총체적이며 변형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리스트는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이 12 개의 예는 BAM 이 “교회성” 을 가미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1. 정의로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Justice)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나 불의는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불의에 맞서 외치는 예언자들을 보내셨으며 그 변화와 수정을 요구케 하셨다. 부패, 노동착취, 그리고 이민자들과 같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학대 등의 불의가 명백히 들어나는 곳은 일터이다.

..정직한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로서의 비즈니스’ 이다. 고객들과 부품제조업자들을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일이다. 부패와 뇌물과의 투쟁도 ‘정의로서의 비즈니스’ 에 속한다.

2. 참 종교로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True Religion)

진정한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약 1:27).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 일터에서 착취당하는 취약한 이들이다. 인신매매범들은 홀로 있는 어린아이들을 노리고, 환경과 교활한 이들로 인해 과부들은 매춘에 끌려간다.

..이러한 현상은 이 세상의 도처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존엄받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서, 그들이 자신들과 타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누가 제공해 줄 것인가? 이를 제공하는 것이 ‘참종교로서의 비즈니스’ 일 것이다.

3. 샬롬으로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Shalom)

샬롬은 선하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일컫는 성경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그 관계는 창세기 3 장의 사건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창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한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동료, 친구, 고객, 공급자, 의뢰인, 가족, 공동체, 세무담당자 등등의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샬롬, ‘샬롬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지향할 것인가?

4. 청지기로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Stewardship)

모든 사람들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위임을 받았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우리는 자산에 대해 언급하고는 한다. 청지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때 청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업적인 재능을 주셨다. 그것들은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과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관리의 재능, 회계나 판매의 재능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양한 사업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청지기로서의 비즈니스

5. 섬김의 리더십으로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Servant Leadership)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주님은 선하고 경건한 리더십의 모범이다.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다는 사실은 섬기는 지도자상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을 지향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섬기는 리더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연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간단한 공식이거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산업이나 다른 문화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핵심 원칙은 사람, 공동체, 국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좋은 리더십이 부족함에 대해 아주 자주 언급이 됨을 보게 된다. 섬기는 리더십으로서의 비즈니스는 단순히 필요한 것 이상이다

6. 인간의 존엄성으로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Human Dignity)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께 연결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선한 것을 창조하라고 창조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창조한다는 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신성한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창조성이 발전한 결과로 인간의 존엄성이 일부 깨어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능력이 존재한다. 직장을 잃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실직하는 것과 일을 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을 잃는 것은 타락의 결과이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의 상실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존엄받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신성한 행위이다. - 이것이 인간존엄성으로서의 비즈니스다.

7. 화해로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Reconciliation)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대사라고 한다. 일터에서 조차 깨어진 관계와 갈등이 흔하다. 우리는 또한 인종적, 종교적 집단 사이의 긴장과 폭력을 목격하기도 한다. 비즈니스는 화해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인은 인종적, 종교적 분리들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의 무슬림과 크리스천 사이에는 가혹한 불신과 긴장으로 점철된 오랜 폭력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중국계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정의로서의 비즈니스, 청지기, 샬롬, 섬김의 리더십 등을 의도적으로 행함으로써 인종간의 역학과, 종교간의 관계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화해자로서의 비즈니스를 행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비즈니스인이 될 수 있다.

8. 피조물 돌봄의 비즈니스 (Business as Creation Care)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 평가를 하셨는데 이를테면 당신의 창조물에 대하여 품질 관리를 한 셈이다.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보기 좋았더라” 였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 물질적 영역에서 창조적 존재인 것을 기뻐하며 사람과 피조물들에게 선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다.비즈니스 세계에서 창조적 존재가 되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 첫번째 성경적 위임이다.

..친환경적 비즈니스의 중요성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the triple bottom 에 포함된다. (이익, 사람, 지구)

..2012 년 남아시아를 방문하면서, 나는 주요제조회사들에 대한 관리 컨설턴트로 일하는 커플을 만났다. 이 커플은 분명 BAM 에 분명 사명감이 있었고, 이들 회사들이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작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방대한 양의 물을 정수하도록 도울 수가 있었다. 깨끗한 물을 많이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창조물 돌봄의 비즈니스는 필수적이다.

9. 이웃사랑으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Loving Your Neighbor)

두번째 성경적 위임은 지상명령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는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며 또 섬겨야만 하고, 아울러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이해한다. 예를 들면 ‘실업’은 영양결핍, 기아, 노숙, 인신매매, 질병, 치료기회 제한 등과 또한 부채와 범죄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들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내게는 매우 비인격적이며 기술적으로 들리는 용어)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여만 한다. 비즈니스하면서 이웃의 물리적 환경을 참작하는 것 역시 이 책임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CSR 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성경적 원칙에 기초한다.

..또한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웨이커교도들과 노르웨이의 한스 니엘센은 이미 수백년 전에 비즈니스를 통한 총체적 변화를 이루는 대리인들이었다. 그들은 ‘이웃 사랑으로서의 비즈니스’를 했다.

10. 지상명령으로의 비즈니스 ‘ (Business as Great Commission)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은 세 번째 성경적 위임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향한 세계적 원심 추진력이자 BAM 운동의 주요 주제이다. 우리가 비즈니스 내부에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BAM 은 비즈니스를 통해 세상 끝까지 특별히 경제, 사회 그리고 영적으로 어둡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관한 것이다.

..이는 CSR+이며, 이 차원은 선택과목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이것이 '지상명령로서의 비즈니스'다.

11. 교회로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Body of Christ)

하나님들께서 비즈니스로 부르셔서 무장시키시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비즈니스인들의 전문성과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그들의 소명을 발휘하도록 확인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구두 수선공, 대장장이, 농부, 이들은 각자의 일이 있고, 나름의 직책이 있다. 그들 모두는 성직임명을 받는 신부와 주교와 같으며, 그 자신을 일과 직책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섬기고 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서로 섬기듯이, 이런 식으로 공동체의 육체적(물질적)이며 영적인 복지를 위해 많은 종류의 일들이 행해 지고 있다.“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12.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서의 비즈니스 (Business as Glorifying God)

BAM 은 Business as Mission 의 약성어다. 또 다른 관련된 약성어는 AMDG 이다. BAM 의 궁극적 목적은 AMDG - ad maiorem gloriam- '하나님의 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이다.

www.MatsTunehag.com

Translated by Harry Kim, January 2013